



인삼 총채벌레, 재배 후기까지 반복 발생 우려...지속 관리 필요

- 고온기·장마기 이후에도 잎 변색·말림 등 증상 지속 살펴야
- 등록 약제 번갈아 사용하고 병든 잎·줄기 바로 제거해야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인삼 재배지에서 발생하는 총채벌레가 재배 초기뿐 아니라, 후기까지 반복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고온기 이후에도 예방 관찰을 지속하고 방제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채벌레 피해를 본 인삼
-이파리 색이 변함>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아 초기에 발견하기 어렵다. 또한, 짧은 세대 주기로 여러 세대가 반복 출현할 수 있어 방제가 늦어지면 개체 수가 급격히 늘고 재배 후기까지 피해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잎을 중심으로 즙을 빨아 먹으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잎의 변색이나 말림 등 이상 증상을 세심하게 관찰해야 한다.

농촌진흥청이 올해 6월~8월 인삼 재배지 5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경기 이천, 전북 고창, 전남 영광 등 일부 재배지에서 총채벌레 피해가 확인됐다. 8월 진행한 고온기 현장 점검에서도 총채벌레와 함께 잿빛곰팡이병, 점무늬병, 탄저병 등 지상부 병이 확인돼 재배 후기까지 지속적인 병해충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채벌레 발생 여부를 확인할 때는 밭 가장자리와 잎 앞·뒷면을 세심하게 살피고, 잎의 변색이나 말림, 벌레가 즙을 빨아 먹은 흔적 등 피해 증상을 확인해야 한다.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발생 부위와 범위를 빠르게 파악해 제때 방제에 나서야 한다.

인삼에 등록된 약제로 방제하되, 약제 저항성 발생을 줄이기 위해 작용 방식(기작)이 다른 약제를 번갈아 사용한다. 적용 대상과 사용 시기, 희석 배수, 사용 횟수, 수확 전 안전사용기준 등은 ‘농촌진흥청 농약안전정보시스템(phis.r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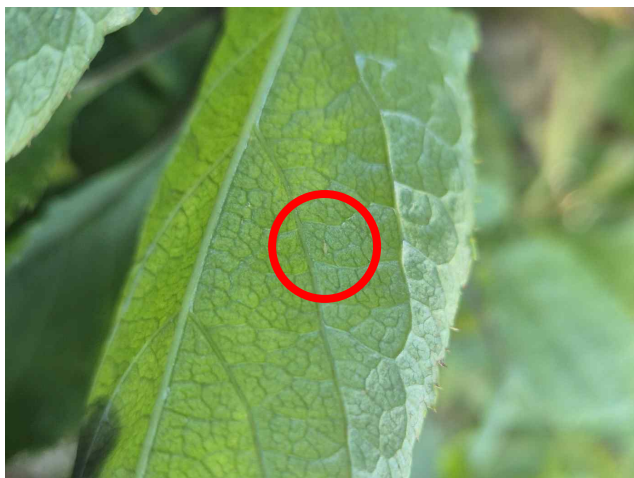
한편, 병해충 피해로 보이는 증상도 고온, 과한 습기, 양분 불균형, 약제 피해 등 생리장애와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임의로 약제를 처리하기보다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단한 뒤 적절한 방제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또한, 물길과 해가림 시설을 점검해 재배지에 물이 고이거나 습도가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고, 병든 잎과 줄기는 발견 즉시 제거한다. 병 발생 재배지에서 사용한 농작업 도구나 신발 등에 묻은 흙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중요하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 박부희 과장은 “총채벌레는 크기가 작고 재배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중요하다.”라며, “고온기와 장마기가 지났다고 방심하지 말고, 재배 후기까지 꾸준히 밭을 살피 약제 저항성을 고려한 적기 방제와 주요 병해충 관리를 병행해 달라.”라고 말했다.

붙임. 인삼 총채벌레 발생, 피해 증상

담당 부서 <총괄>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재배과	책임자	과 장	박부희 (043-871-5650)
		담당자	연구사	홍지은 (043-871-5663)
<공동>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예특작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세원 (063-238-6300)
		담당자	연구사	서미혜 (063-238-6332)
	농촌진흥청에서 연구·개발한 농업의 모든 것 농사로			



<그림1> 4년생 잎에서 발생한 총채벌레



<그림2> 현미경 관찰을 통한 총채벌레 확인



<그림3> 인삼밭 주변 잡초에 발생한
총채벌레 피해



<그림4> 총채벌레 피해 증상이 심한
인삼 개체